

'유익한 한국'을 '소비'하게 하라

역대 주빈국 행사, '문화 마케팅의 장'

이탈리아 초대 주빈국... '자국 문화의 매력 한껏 과시'

주빈국, 전지구적 변화와 진보에 동참하는 기회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주빈국 행사가 얼마만큼의 문화적·경제적 효과를 거둘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주빈국 행사는 독일뿐 아니라 유럽에 한국과 한국문화를 총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문화 마케팅'의 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빈국으로 인한 '득'을 수치로 나타내기는 힘들다. 일본의 경우 주빈국의 영향으로 후일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는 평가를 받긴 했지만 그 효과가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도서전 기간 내의 판권계약이나 노벨상 수상과 같은 즉발적 효과보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문화교류와 점진적 판권계약 등의 지속적인 후발 효과가 더욱 의미가 크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행사기획위원회 문승현 위원은 "주빈국으로 인한 효과는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자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주빈국에 초대받은 국가들이 주빈국 행사에 어떤 노력을 쏟았는지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 다양한 문화 소통의 장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직후인 1574년에 처음 시작된 도서전으로, 가장 오래된 역사적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정작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의 위상은 역사적 전통이 아니라 전세계의 출판인, 언론인, 서점상인, 작가, 번역가, 에이전트 등의 소통에서 나온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조직위는 이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각종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국의 출판 꿈나무를 초대해 전문세미나에 참석시키는 'Frankfurt Fellows'에서부터, 젊은 서점상인들과 출판영업인들을 위한 독일-프랑스의 실습생 교류, 프랑스와 독일 간의 젊은 번역인을 위한 프로그램, 아시아-아프리카-남미 문예물의 번역진흥 프로그램, 국제 서점상인 세미나, 중·동부유럽의 출판사와 서적상을 위한 전문워크숍, 독일도서의 판매촉진 프로그램, 박해받는 작가의 보호를 위한 '피난의 도시' 프로그램, 평화상의 시상과 주빈국 프로그램의 운영, 국내외 유관 기구들과의 파트너십 정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해마다 전 세계의 출판인들을 끌어 모으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으로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국제 서적시장에서 여론 형성을 주도하게 된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 주목을 받은 책은 전 세계 독자들에게 퍼져나가고, 도서전에서 출판 관계자들이 나눈 대화는 세계 출판의 새로운 경향으로 대두되게 된다. 물론 도서전에서의 판권 거래량도 세계 최대다. 한때는 전 세계 판권 계약의 80퍼센트가 프랑크푸르트도서전시장을 거쳐서 거래되기도 했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의 하이라이트는 중점테마제도(1976년에서 1986년까지)와 주빈국제도(1988년 이후)에 있다.

시대 변화에 적극 부응한 중점테마 제도과 주빈국 제도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중점테마는 주빈국 행사가 있기 전에 시행된 제도로 사회문화 쟁점을 다루었다. 첫 테마는 1976년 라틴아메리카 문학이었다. 당시 미국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만 향유되고 있던 라틴아메리카 문학은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 '신화, 역사, 현실, 라틴아메리카 문학'이라는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각종 토론회가 벌어진 것을 계기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후 억압을 받는 소수집단이라는 관점에서 설계된 '어린이와 책' (1978), 세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아프리카 흑인 문학을 다룬 '아프리카 흑인문학' (1980), 과거에 생겨난 종교가 현대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다룬 '과거 종교가 현대에서 갖는 의미' (1982), 그리고 조지 오웰을 조명한 '오웰 2000' (1984), 인도문학을 조명한 '인도문학' (1986) 등으로 이어졌다.

주빈국 행사는 주독일 이탈리아 대사인 페라리스가 중점테마가 없던 1987년, 베스트셀러 작가인 움베르토 에코가 개막식에 참가해 많은 관심을 끈 것에 착안해 만든 것이다. 페라리스는 그 다음해 이탈리아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적 지원을 얻어내고, 이탈리아 대통령과 외무부 장관 등을 개막식에 참석시킴으로써 이탈리아를 책의 나라로 알리는 데 성공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전시회장을 축소판 이탈리아 궁전으로 변모시키고 이탈리아 출판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전시했다. 17, 18세기 건축양식에는 현대의 이탈리아 책을 전시했고, 19세기 궁전양식에는 이탈리아 오페라와 음악에 대한 정보를 전시했다. 전형적인 이탈리아 양식의 카페에서는 각종 문학행사가 밤낮으로 벌어졌다.

1990년 주빈국 일본

지금까지 일본을 제외한 모든 주제국가들이 구미제국이였다. 이들의 경우 자국 문화가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과 이미지를 알리고자 했다. 일본의 경우 유럽인들에게는 생소한 일본문화 전반을 소개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본관은 'Japan : Then and Now'란 주제로 콩그레스 홀이라 불리는 2층 건물 전부를 사용했다.

- Japan : A History in Book 국립 국회도서관 등의 협력으로 과거 8세기부터의 출판문화 소개
- Japanese Books Today 일본 서점에서 판매중인 도서 약 2,200종 전시
- Japanese Publishing & High Technology 일본의 최첨단 전자출판물 소개
- 일본의 미 : 사계^{四季} 색 모양의 컴퓨터 그래픽스
- 일본의 예^藝 : 목판인쇄 시연
- 일본도서의 해외출판목록
- 세계의 일본관계 도서전 :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조직위원회가 세계 각지에서 모은 'Book on Japan' 약 2,000종 전시
- 일본어 교실 : 독일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강좌
- 식자^{食字} 교재와 아동도서전 그림책, 퍼즐, 카드게임 등
- 심포지엄 : '일본문학은 유럽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에 겐자부로 등 일본 작가와 독일 측 패널리스트 참가
- 문학 대담 : 오에 겐자부로와 권터 그라스의 대담

역대 주빈국, 세계 문화적 공론의 주역으로 발돋움

이때 이탈리아의 작품이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러한 성공이 주빈국 행사의 모델이 되었다. 이후 해마다 프랑스, 일본, 스페인, 멕시코, 네덜란드, 브라질,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위스, 헝가리, 폴란드, 그리스, 리투아니아, 러시아, 아랍연합 등의 순으로 주빈국에 초청되었다. 이들은 전 세계인들에게 숨겨지거나 덜 알려진 자국의 문화를 알리고 또 그 매력을 부각시킴으로써 대량의 판권을 계약하는 등 윈하는 바를 얻곤 했다.

결국 주빈국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같은 공론의 중심에 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려대학교 독문학과 이기식 교수는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중점테마제도와 주빈국 제도를 통해 시대의 변화에 부응했고, 도서전과는 거리를 두어온 국가를 끌어들이며 국제화의 길을 갈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결국 한국이 대규모 예산을 써가며 준비한 주빈국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길은 외국인들에게 낯선 한국(문화)을 얼마나 각인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삶에 유익하다는 것을 느끼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한국문화를 소비하게 유도하는 것이다. 결국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차원이 아니라, 소비자의 취향을 계산한 철저한 기획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참고자료 : 이정춘의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의 운영체제 연구>, 이기식의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의 역사와 주빈국 선정의 의미>, 문승현의 <역대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주제국가 문화행사>

사진 | 2004 프랑크푸르트도서전 · 프랑크푸르트 = 신동섭 기자

취재 신동섭 기자

2003년 주빈국 러시아

러시아는 '새로운 페이지'란 주제로 유럽인들이 갖고 있는 구소련의 암울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새로이 출발한 러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다수의 세계적 문호를 자랑하는 러시아는 재능 있는 새로운 작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역대 주제국가들 중 가장 많은 젊은 작가들(150여 명)을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 소개했다.

- 11~16세기 구러시아 제국의 건축 예술, 아이콘박물관
- 아마존골드, Kurgan Scythian의 보물
- 빌헬름 대왕과 니콜라스 2세의 서신교환
- 사회주의자의 리얼리즘, 1930~1950년대 구소련의 예술작품
- 스탈린 재조명, 1940~1950년대 구소련의 사진작품
- 특별전시 '공산주의 : 꿈을 실현하는 공장'
- 사진으로 보는 전환기의 러시아, 1996~2003 '러시아 현대예술가'
- 스탈린 재조명
- 노프고로드시 : 11~16세기 중세 러시아의 위대한 자유공화국
- 볼로토보 평야지대 소재 도미션 교회의 벽화 복원
- 돈 스테플랜드의 황금
- 미신의 시대를 들여다보는 창 : 19~20세기 시베리아지방의 샤머니즘